

분별지 아닌 지혜의 이론

대승기신론 ①

깨달음, 해탈, 열반! 이런 지런 아픔으로 깊게 주름 패인 영혼들에게는 실로 가슴 설레는 말들이다. 구구 절절 사연 많은 그 슬픈 고뇌들로부터 맑게 벗어난 자유를 한번쯤이라도 꿈꾸어 본 사람이라면 슬깃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매력의 언어들이다. 그리하여 불자들은 선문(禪門)을 두드린다. 상상으로나 뜬구름의 언어를 지금 이곳의 삶에서 체현하기 위해.

그런데 종교적 언어로 그려보는 희망의 세계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세심하게 따져보는 이들은 의외로 드물다. 깨달음이나 구원이나 하는 언어에 자신의 희생을 뭉뚱그려 투사할 뿐, 정작 그 언어로 그려보는 경지나 세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 없이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때때로 희망의 언어에 빠져 들다보면, 비록 진지하고도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혹 영동한 결과나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후에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확신하여 지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시비다툼에 초연한 듯 살아가는 진지한 종교인은 과연 '구원'이나 '천국'이나 하는 언어로써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을까? 혹 현재의 삶에서는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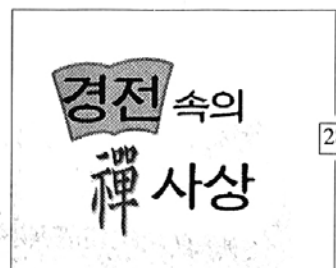


박태원 (울산대 교수)

인간 관계나 부귀영화의 욕구를 천국에서의 삶에다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성스러운 언어로 포장된 그의 종교적 희망은 사실상 지극히 세속적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욕과 집착의 연장에 불과하다.

선·화엄·천태·정토등 대승불교 상술 독보적 논서...저자·역자 이견 많아

깨달음이란 언어 주변에도 혹 이런 사정들이 알게 모르게 얽혀 있다면 참선의 여정은 애초부터 간파할 수 없는 후유증을 잉태하게 된다. 도대체 우리는 깨달음이란 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대장부 일대사리며 의기양양한 것도 좋지만 항상 이 점을 깊이 살피고 또 살피야 한다. 어차피 깨달음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전에는 제 아무리 깊은 성찰로도 깨달음의 경지를 온전하게 그려낼 수 없는 일이지만, 목표로



대한 정확한 조준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언어(敎)를 주목하게 된다. 적절하고 적합한 언어는 목표로 정확하게 안내하는 필수불가결한 가이드이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깨달음의 트랙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일순간 열어 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어 결핍과 과잉의 후유증을 넘어선, 깨달음과 언어의 하나됨은 언어의 숙성을 철저히 간파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대승기

신론의 언어가 빛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6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 등장한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내용을 정교하게 압축하고 있는 불교이론서로 평가받으며 선·화엄·천태·정토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깊이 관여하면서 논서로서는 단연 독보적 지위를 누린다. 저자를 마명(馬鳴)으로 하여 진제(眞諦, 499-569)와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의 한역본 두 가지가 전하지만, 원본인 산스크리트본(本)이나 티베트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저자나 역자 등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다. 특히 기신론이 중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어 그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사상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적어도 인도불교의 사상적 맥락에서 성립하였으며, 순전히 중국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찬술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랄 수 있다.

기신론이 논서라고 해서 요즘 학문이 양산하고 있는 이론서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몸(수행)과 머리(지식)가 분리된 채 머리만 작업해온 오늘의 메마른 이론들과는 달리, 수행과 이론이 하나가 되어 형성된 영성 넘쳐나는 지혜의 이론이 기신론이다. 극도로 예리하지만 자기 분열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분별지의 상상물이 아니라, 기신론이 말하는 진여삼매(眞如三昧)의 몸에서 발하는 지혜의 언어적 표현이 기신론이다. 그렇다면 기신론은 깨달음이라는 목표 조준에 어떤 언어로써 기여하고 있을까? 다음 번에 기신론 삼세육주(三細六麤)의 이론에서 그 한 해답을 음미해 보기로 한다.

태국 니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진리의 향기 ①

어느날 부처님이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이던 다가자누라의 질문을 받았다. "저희는 세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속인입니다... 비록 이런 형태의 우리들이지만 이생 동안 행복으로 이끌어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다가자누여!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즐기는 노력, 주변을 잘 보살핌, 좋은 친구와 사귀, 분수에 맞는 생활, 이 넷의 구족(具足)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세속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딱 잘라 양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생계수단에 그쳐야 할 이유는 없고 정신적 발전의 수단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원이든 사업가든, 주부이든 의사든, 농부든, 관사든 간에 바로 그 직업을 정신적 자질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가리얏고 고요하게 하는 행위이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과 관찰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으로 가득찬 멋진 모험 길이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에서 부딪쳐야 하는 갖가지 갈래 길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태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잠시동안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터를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느껴 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등 두가

일은 정신계발의 수단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찾자"

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깨달음 보살의 선물 꾸러미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꾸러미에 한 걸음씩 다가가 수록 보다는 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만약 부처님이 왜 선물을 남겼는지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메모를 읽으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세 마디의 경구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내 일 속에서 불법, 진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에 대해 마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일터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 보살핌, 다정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책 케로라의 어느 산문중에서 다음 구절은 한 번쯤 곱씹게 하는 사상이 담겨있다. "제나로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왜소한 것이지만 거대한 대지조차 안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제나로의 삶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 고독스러운 곳에서 그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가의 합당한 해답이 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라는 열정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그는 슬픔도 낙담도 놓아버릴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자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정신에 자유를 준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때, 타인의 슬픔도 놓아줄 수 있다."

현명한 명상 수행을 통해 갖추어지는 마음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은 재가생활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며 명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재가생활 역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명상 수행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혁을 이루어 내는 자기 계발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자기 계발은 매우 특이한 틀과 작업을 완수해 내므로, 그것은 지상의 걸걸질을 돌파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빛 앞에 활짝 열리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지혜의 빛이 흘러들어와야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끝없이 상난 파도가 밀려드는 이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의 방파제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오종욱 기자(gobaouu@buddhapia.com)

과학산책

우연의 일치

이번 호에서는 너무나 비일상적이면서도 심리적 의미 또한 있어 단순한 우연만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우연의 일치를 지칭하는 싱크로너시티(synchronicity, 동시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싱크로너시티에 관한 연구는 융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며 조화원리(배타성원리)의 발견자로 잘 알려진 파울리의 공동 저작에 의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싱크로너시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둘 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들과 명백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구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종류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서부터 '신기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책에서 어떤 부분을 찾다가 마음먹고 책을 펼쳤는데 찾다가 하는 바로 그 부분이 펼쳐진 경우, 친구가 마음속에 떠올라 전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데 바로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여러분도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경험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단지 기본 좋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더욱 믿어지지 않는 예도 있다. 영화 때문에 다시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비극과 관련 있는 싱크로너시티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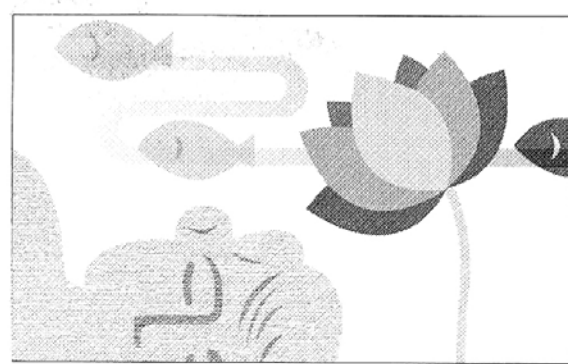
마음에 떠오른 사람 전화 걸어오고 타이타닉호 소설 내용처럼 침몰 "동시성 현상 우연 아니다" 융 주장

1898년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소설가는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소재로 소설을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여겨진 이 배가 대서양 건너 항해 때 빙산에 부딪쳐 침몰한다는 줄거리이다. 또한 충분한 구명정을 마련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실제로 그런 이름의 배가 그런 이유로 참사를 당했다. 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영국군 한 신문의 글자 맞추기 퀴즈의 정답이 우연히도 상륙작전의 암호명들이었다. 놀란 군인들이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을 더욱 믿어지지 않는 예도 그런 단어들 이 떠올랐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알리고 있는 것이 아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융이 이를 말하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고 융은 유리창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보았다. 그 때가 융의 창문에 풍덩이가 나타난 유일한 때이다. 융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면서 창문을 열어 풍덩이가 날아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 여성은 너무나 이상적인 여성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느 날 환자는 풍덩이가 나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융은 이집트 신화에서 풍덩이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성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녀가 일종의 심리적인 다시태어남을 겪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융 자신의 임상경험이다. 융은 너무나 이상적인 여성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느 날 환자는 풍덩이가 나오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융은 이집트 신화에서 풍덩이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여성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녀가 일종의 심리적인 다시태어남을 겪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화, 혹은 갑작스럽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든지, 죽음, 탄생, 심지어 직업의 변화가 있는 시기 말이다. 융은 또한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 혹은 통찰이 환자의 의식의 표면에 막 등장하려는 때 강도대 최고조에 이르는 경향이 있음도 알아냈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시흥서원



신령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화중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김진우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세한 내용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법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시책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안과 출판사별 색인안을 두어 목적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